

◆교회목표◆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 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관 충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내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오태희 편집국장:조선근

1994년도 당회장 목회지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엡 4:13)

1994년도 새해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교회의 각 부서에서는 이미 93년도 모든 결산과 94년도 계획을 마무리하여 새해에 힘차게 도약할 준비를 완결하고 출발신호를 기다리고 있으며, 당회장의 목회지침도 수립되었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13)라는 말씀을 모토로 하여 다섯 가지 목회지침을 발표했다. 새해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목회지침은 1.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 2. 양육하는 교회 3. 전도하는 교회 4. 선교하는 교회 5. 섬기는 교회이다.

교회의 세 기둥을 이야기 한다면 교육과 선교와 봉사이다. ‘충현교회는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의 목표인 지역 사회 봉사를 위해 이 봉사를 바칩니다’라고 한 봉사관의 헌당문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3월 10일 봉사를 완성하여 하나님께 헌당함으로써 이미 최선을 다해오던 교육과 선교와 함께 지역사회 봉사의 기지를 다지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왔거니와 새해에는 더욱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육을 통하여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 온전한 천국일꾼을 양성하고, 전도하고 선교하여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전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지역사회에 나눠주고 섬기는 교회로

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회의 목표도 새로 예배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고 문구도 조정하여 1. 신령한 예배, 2. 천국일꾼 양성, 3. 민족복음화, 4. 세계선교, 5. 지역사회 봉사의 다섯 가지로 확정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리라”(눅 12:42-44)

신년부흥회 기도원에서
“믿음으로 새출발 합시다!”
1월 3일 밤부터~6일 밤까지

신년부흥성회가 충현기도원에서 오는 1월 3일 밤부터 1월 6일밤까지 모인다. 새해를 맞으며 새로운 각오로 새출발을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새 출발합시다”라는 주제로 김창인 원로목사와 당회장 신성종 목사, 충현기도원 지도 유창무 목사를 강사로 모이게 된다.

기간 중 매일 오전 5시에 새벽기도회, 오전 10시 30분에 낮 공부, 오후 8시에 밤 집회로 모이는데 숙식을 원하는 사람은 사무실에 등록하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저녁집회 참석자만을 위해 버스를 운행한다. 오전 9시 ~ 10시, 오후 6~7시 사이에 교회 뒤편에 광장에서, 성남 모란시장 남쪽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30분에, 분당 전차리 교회 앞에서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30분에 각각 버스가 출발한다.

94년도 교구일꾼 임명

교구장, 교역자, 지역장, 부지역장, 협력구역장, 구역장, 권찰 등

오늘 IV부 예배시에 1994년도 교구일꾼(교구장, 교역자, 지역장, 부지역장, 협력구역장, 구역장, 권찰) 임명이 있다. 각 교구의 살림을 꾸려갈 구역의 일꾼들이 협력하여 교회의 발전과 부흥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각 교구마다 배가운동, 전도운동, 성경공부 등 많은 바 일을 잘 감당하는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결심하는 시간이 되어야겠다.



1994년도 단기 수련회 열려

1월 12일(수)~13일(목) 오후 6시 40분부터

1994년 새해를 맞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엡 4:13)의 표어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양육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등 다섯 가지의 목회지침 아래 충현의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단기 수련회가 열린다.

금년 단기 수련회는 1월 12일(수) ~ 13일(목)에 걸쳐 오후 6시 40분부터 10시까지 교회당과 교육관에서 열린다. 새해를 맞으면서 충성되고 신실한 종으로서의 자세와 청지기의 자세를 확립하며 영적무장으로 건교회를 세기 위한 이번 수련회 첫날 1부에서는 김상복 목사의 ‘직분자의 영성과 사명감’이라는 주제와 2부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94년도 목회방향과 전망’으로 강의한다. 둘째날에 1부에는 김상복 목사의 ‘교회

부흥과 직분자 헌신’의 설교와 각 직분별 강의 제목이 아래와 같이 있게 된다.

- 교역자 : 지도자의 비전과 협력사역 (이종표 목사, 베다니홀)
- 장로 : 교회갱신과 장로의 역할 (김상복 목사, 국제회의실)
- 안수집사 : 안수집사의 역할과 자세 (윤용규 목사, 교육관 301호)
- 권사 : 구역예배의 권사의 역할 (최인근 목사, 교육관 304호)
- 교사 : 교회학교 교사의 사명 (이조용 목사, 갈릴리홀)

공동의회 소집 공고

아래와 같이 공동의회를 소집하오니 등록 세례 교인은 전원 참석바랍니다.

- 일시 : 1994년 1월 2일 IV부 예배후
- 장소 : 본당
- 안건 : 1993년도 결산 및 1994년도 예산

1993. 12. 26.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당회장 신성종 목사



성탄축하찬양

지난주일(12월 19일) 저녁 찬양예배는 성탄축하찬양의 밤으로 지냈다. 임마누엘찬양대가 연주하는 특별찬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날 임마누엘찬양대는 성탄절칸타타 ‘사랑의 왕’을 연주했다.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부활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 신자들은 세 가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창조신앙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사흘만에 부활하셨으며 우리도 부활한다고 믿는 부활신앙입니다. 셋째는 예수님께서 구름타고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구름타고 재림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 재림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들은 이 부활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별별 학설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기절을 했었다느니, 혹은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해다가 부활했다고 한다니 등등 여러 가지의 많은 학설들을 내걸어서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실패를 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교회는 이 부활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지난 2000년 동안 논쟁의 핵심이 되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기독교가 계속되는 동안, 인류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이 부활논쟁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1. 부활 논쟁

유대인의 법 가운데 신명기 25장 5-10절에 보면 형사취수(兄死取嫂), 즉 형이 죽은 뒤에 형수를 취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윤리였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 가문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멸절을 막기 위해서 바로 이 제도가 생겨졌던 것입니다. 큰 형이 결혼을 해서 형수와 살다가 후손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때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자녀를 두어서 그 가문을 잇게 하고 그 가정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근족이 가문과 기업을 잇게 해주었는데 룯기의 보아스와 룯과의 결혼이 바로 그 제도의 하나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형사취수의 제도를 예로 들면서 한 여자가 결혼했는데 애기를 낳지 못하고 형이 죽자 동생과 결혼했으나 역시 애기를 낳지 못하고 결국 일곱째까지 결혼을 했다가 다 죽은 후에 부활하게 된다면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부활교리를 쟁취한 것으로 만들려고 한 저들의 작전이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로 오해하였도다" 하시면서 사두개인들의 영적인 무지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은 첫째 성경도 알지 못했고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지했는가 하면 결혼은 내세에도 존재한다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면 거기에는 결혼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천사들처럼 성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남자, 여자라는 성별이 완전히 구분되어져 하나의 짝을 지어서 삽니다만 천국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 율법적인 지배를 세상의 재혼법이니 하는 율법이나 법의 지배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가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부활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서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기에 알맞게 되어졌지만 물에 올라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새는 하늘을 날기에는 적합하지만 물속에서 살기에는 부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서 살기에는 알맞지만 천국에 가서 살기에는 알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는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체(靈體), 영적인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몸은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령한 몸

입니다. 둘째는 다시 썩지 않는 몸입니다. 물론 병도 들지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셋째로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모습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들이 부활하게 될 때에 나이 많은 분들은 쪼글쪼글한 얼굴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허연 머리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 영광스럽고 썩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맹인들은 천국에 가면 볼 수

중헌강단



부활 논쟁

(마 22:23-33)



신 성 종

<목사·당회장>

있는 눈을 가지고 부활합니다. 듣지 못하시는 분들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부활합니다. 앉은뱅이들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인간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신 32:39). 또한 모세는 창세기에서 에녹의 승천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창5:24). 그리고 구약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부활의 실례를 몇가지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렐다 과부의 아들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왕상 17:20-22), 또 수넬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왕하 4:32), 또 엘리사의 뼈에 닿은 모든 시체들이 그냥 부활해서 일어나는 그런 장면(왕하 13:21)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그림자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될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림자로서 구약에 이러한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 산 자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책망하신 다음에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요 아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 누구나 물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불란서의 유명한 수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을 꼽습니다. 그는 저 유명한 <팡세>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자입니다. 그 책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아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은 실험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또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은 인간의 이론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도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아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속에 구체적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의 삶과 역사속에 참여하시고 주관하시면서 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삭을 항상 인도해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곱이 행한 대로 갚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아곱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 결론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논쟁을 통해서 몇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무지중에 가장 큰 무지가 영적인 무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에게 그 언약대로 자식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아곱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행한대로 책망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를 축복해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의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섬기는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도 자신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 놓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활의 첫날메이시며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요 증거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침묵의 의미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는 격언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기적인 면에서 옳은지 모르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다. 침묵은 때에 따라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할 때에 침묵하면 반대에 동조하는 것이 되고, 찬성할 때 침묵하면 찬성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다수가 찬성할 때는 반대파를 가지고 있더라도 침묵한다. 말해보았자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침묵은 때때로 기회주의자들의 무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옳은 것은 예, 틀린 것은 아니오라고 말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는 성경이란 잣대로 재어보고 예와 아니오를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글 / 신 성 종 목사

♣ 93년을 마무리하면서 / 예배위원회 ♣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윤 용 규

(목사, 제12교구, 예배위원회 지도)

우리 교회에 주어진 목회지침의 첫 번째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될 불가변적(不可變的) 지침이 될 것으로 믿는다. 교회의 부흥 성장은 교회의 교회된 본질에 있다. 어떤 교회냐가 중요하다. 무엇이 목적이냐가 중요하다. 교회의 역사는 곧 예배의 역사이다. 참된 예배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며 기독교 신앙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처럼 신앙의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한 이 때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이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예배의식이 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요 4:22). 세상의 종교들은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욕구충족과 오로지 복받겠다고 하는 한가지 일념에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기쁘시게 하며 그를 찬양하며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오직 그에게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없는 기독교가 없고 참된 예배없는 교회의 존재 가치도 없으며 우리의 신앙도 참된 신앙일 수가 없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한 예배는 곧 영적인 예배를 의미하고 진정으로의 예배는 성경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므로 공적예배에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성

도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심과 각오를 하면서 목은 해를 보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93년 한해 동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신 은혜는 무엇이며 또 고쳐야 될 점은 무엇인지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보기로 하자.

일년 열두달 52주의 주일예배를 위시하여 찬양예배, 삼일예배(수요 1,2부), 절기예배, 감사예배, 부흥성회, 예수사랑 큰잔치, 특별히 교회 40주년을 맞이하여 각종 기념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한해였다. 또한 4차에 걸쳐서 시행한 성례식을 통하여 수세받은 자는 학습 577명, 세례 603명, 유세 223명, 입교 87명, 개종 36명이며 수찬자 수는 33,559명이나 된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해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나 자신에 대한 결산보고서도 작성해야 할 것이다. 1년 동안 내가 주일 성수하여 참된 예배를 드렸는가? 드렸다면

받은 바 은혜는 감사해야 할 것이고 만일에 그렇지 못했다면 불경스럽고 무관심하고 형식적으로 드렸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 회개해야 할 것이다. 예배시간에 늦는 것도 회개하고 좌석질서 못 지킨 것도 회개하고 예배에 방해됐던 작은 일까지 회개해야 할 것이다.

참된 예배는 시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일단 예배당에 들어오면 앞자리부터 차례대로 앉아야 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고 하는 하나님 면전(面前)의식을 가지고 고요히 묵상기도를 해야 한다. 한 주 동안의 받은 바 은혜는 감사하고 범한 바 죄는 회개하면서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며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더불어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서로가 예배 질서를 지킴으로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도의 교제하는 시간 외에는 절대로 잡담을 하거나 떠들어서는 아니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된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응답이며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다. 새해에는 좀 더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서의 알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93년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었그제 같은데 이제 겨우 일주일 남짓 남은 것을 생각할 때에 세월은 너무 빠르고 두려운 마음 조차 든다.

연초에 각 기관별 단기 수련회 때에 「구역의 성장이 곧 교회의 성장」임을 마음에 새기면서 구역

의 부흥을 다짐한 바가 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마치 세포와 같은 구역을 통해서 성장한다. '한 구역'은 교회성장의 기본단위로 각 구역이 성령의 역사로 성장할 때 교회도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구역장을 비롯한 구역의 일꾼(교구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구역일꾼의 사명과 책임은 실로 지대하다. 생물의 세포 중심에는 핵이 있는데 핵이 소멸되면 그 세포는 죽고 만다. 세포의 핵과 같은 구역일꾼 특히 구역장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은 직접 천사를 보내셔서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일꾼 즉 구역일꾼을 통해서 일하신다. 바울과 베드로가 있을 때에도 그렇게 하셨고 오늘날도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힘쓸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며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나님은 교구의 부흥, 구역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 하시지 않는다. 구역의 일꾼을 통해서 구역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의 구역이 돌이 되고, 돌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는 부흥을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 93년을 마무리하면서 / 교구위원회 ♣

“구역일꾼으로서의 나 자신을 돌아보자”

김 성 운

(목사, 제6교구, 교구위원회 지도)

믿음에 본이 되어야 한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쉽게 낙망치 않고 즐기며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구역장이 되어야 한다. 돈독한 믿음은 쉽게 이웃으로 전달되어 전 구역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히 10:38)

구역일꾼은 행실에 본이 되어야 한다. 자기기도 행치 않고 남에게 하라고 한다면 그 말은 아무 위력도 나타내지 못한다. 본이 되는 구역장이 될 때에 구역은 성장하게 된다.

93년도 한 해 동안 구역의 일꾼으로서 자신을 되돌아 보는 것은 94년도를 준비하는 값진 일이다.

93년도에는 특히 충현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었다. 이 많은 모임과 행사들은 각 구역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생각해 보면 좀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93년도에 수고하신 모든 교구일꾼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올 한해를 되돌아 보며 다가오는 94년도에는 더욱 많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일꾼이 되자!

를 확장시켜 나가신다. 그러므로 이 막중한 사명을 알고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구역일꾼으로서의 나 자신은 어떠했으며 어떻게 일해 왔는지를 돌아켜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1. 구역장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며 얼마나 말씀을 철저히 준비하여 왔는가?

구역모임에서 구역성경공부는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역장이 말씀을 모르고서 인도한다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2. 구역을 꼭 부흥시키고 말겠다는 특별한 열심이 있었는가?

세상일도 성공시키려면 열심이 없이는 안 된다. 더구나 영혼을 돌아보고 가르치는 일에 열성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 '열심이 없는 구역장은 쓸모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 바울 등은 다 열심이 불과 같았다.

3. 성령충만함으로 일하였는가?

성령의 능력없는 것은 가르칠 수도 없고 감

화를 끼칠 수도 없다. 철저한 경건의 삶으로 성령충만함을 입어야 한다.

4. 구역부흥의 꿈이 있었는가?

'오늘 해도 그만 내일 해도 그만이다'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모일 사람만 모이라. 오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어떻게 하면 구역원들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프로그램을 세로 만들어야 구역이 부흥될까? 어떻게 해야 불신 가족과 이웃을 주께로 더욱 인도할 수 있을까? 하며 쉬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구역부흥의 꿈이 있어야 한다.

5. 전도하는 구역모임이 있었는가?

구역은 전도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한다. 구역모임에는 새로운 사람을 인도하여 함께 참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불신자들은 교회는 잘 나가지 않으려 해도 구역모임 같은데는 구경가자고 하면 쉽게 따라 나온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며 사랑을 베풀어 소외된 이웃으로 하여금 구역모임에 나오도록 하여 주님께로 인도해야 한다.

6. 구역장으로 얼마나 본을 보였는가?

'93 군전도회 총회 마쳐

회장에 김재명 장로를 만장일치로 재선임

지난 17일(금) 회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전도회 총회가 열렸다. 93년도에 활동이 두드러졌던 군전도회는 진중세례 4회로 1,154명에게 세례를 주었으며 장병위문사업과 군목지원사업과 교회의 건축비 지원과 문서전도사업(성경찬송, 종교서적) 등 많은 일을 해왔다. 초창기 30명에서 시작하여 현재 506명에 이르는 군전도회는 이번 총회에서 현 회장 김재명 장로를 만장일치로 재선임하였다.

은 일을 해왔다. 초창기 30명에서 시작하여 현재 506명에 이르는 군전도회는 이번 총회에서 현 회장 김재명 장로를 만장일치로 재선임하였다.



선교사에게 보내는 편지

◆ 이집트의 이준교 선교사님께 ◆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눈이 와서 지붕위로 수북히 쌓인 것과
거리의 야경과 백화점 앞의 구세군이
크리스마스가 가까움을 느낍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아직 답장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띄웁니다. 그간 별일 없으셨죠? 건강도 좋으시지요? 왜 답장도 받기 전에 두 번째 편지를 썼는지 궁금하시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눈이 와서 지붕위로 수북히 쌓인 것과 거리야 야경과 백화점 앞의 구세군이 크리스마스가 가까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습기도 하지만 이 편지가 도착할 때쯤이면 한참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일겠지요. 그곳에선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우리 충현교회처럼 들뜬 분위기일지? 아니면 대충 챙기고 넘어가는 공휴일쯤으로 생각하는 날인지.... 어쨌든 기쁜날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이곳 소식 궁금하시죠?

큰일은 없구요. 다만 대전 EXPO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어요. 11월 7일예요. 교회소식은요 11월 20일에 중등 1·2·3부 연합 '시와 찬양의 밤'이 있었구요. 선교모임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교위원회의 김양홍 목사님의 특강도 들었고, 일본에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되신 김철영 집사님의 특강도 있었구요. 세부사항으로는 선교사님들께 두 번째 편지와 선물보내기가 끝이 났구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느라 매우 분주해요. 그래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않고 있어요. 참 오는 가정예배를 드리는데요. 맨 마지막 기

도란에(*충현의 만나 교회에서 발행하는 가정 예배지 아시죠?) 선교사님 기도가 써 있었어요. 모슬렘들의 어둠의 장막을 걷어 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내용이 있었어요. 참 힘드시죠? 어려운 일도 많으시죠? 그 어려움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기쁜 마음으로 극복하고 계신 선교사님을 생각해 보니 선교사님이 참 훌륭하시다고 생각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얼른 공부 마치고 선교사님 도와 드릴게요. 그때까지 조금 더 분발하셔서 좋은 선교활동 하시길 바래요. 어려우실 땐 주님을 생각하시구요. 참 선교사님 안식년은 언제세요? 지나셨던가요? 아니죠? 확인해 볼게요. 만약 안식년이 지나시지 않으셨다면 한국으로 안식년을 맞아 오실 때 저희 모임에 한번 참석해 주시구요.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에 오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저희 모임에 참석해 주세요. 어디서 모이는지 모르시죠? 제게 전화(464-9044)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꼭이요.

이제 제법 쌀쌀해져요. 겨울인가봐요. 그곳은 춥지 않겠지만 그래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선교활동하시는 선교사님이 되시길 바래요. 그럼 이만 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93. 12. 17.

한국에서 이 해만 드림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소서.
2.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3. 새로 임명받은 교구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소서.
4. 불우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소서.
5. 범한 죄는 회개하고 기도로 준비하여 다가오는 94년도를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김천채 장로

전국 직장선교 연합회장연임

지난 12월 18일(토) 전국직장선교 연합회에서는 충현교회당에서 개최된 제13차 전국총회에서 본 교회 김천채 장로가 '93년도에 이어 새해 94년도 회장으로 연임키로 결정했다. 우리나라 1200만 직장인의 복음화를 위해 전국 각 지역 및 직능별로 조직, 활동하고 있는 직장선교 연합회는 각 직장의 자체 전도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본 교회의 김창인 원로 목사와 신성종 당회장 목사가 고문 및 지도위원으로 있으며 마리아 여전도회에서 또한 직접 전도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수도노회 주교연합회 주최

성경고사대회 및 성가경연대회

12월 28일(화)에 수도노회 주일학교 연합회(회장 송기홍 장로) 주최로 성가경연대회 및 성경고사대회를 실시하는데 성가경연대회에는 지정곡(독창:387장, 중창:491장, 합창:49,402,489장)이며 참가인원은 중창(2-4명), 합창(30-40)이며 참가대상은 초등부, 중고등부이다. 성경고사대회는 공과 공부책 1과에서 52과의 범위로 실시한다. 이번 대회의 특전으로 전국대회 출전자격이 주어진다.

선교사에게서 온 소식

J의 녀마주의 프로젝트 현황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리며 11월 선교보고를 드립니다.

11월 13일에 주간충현 제235~238호와 충현의 만나 11월호와 주보를 잘 받았습니 다. 지금은 H 한인교회를 은혜중에 인도하고 있으며 애굽복음주의 신학교에 출강하여 은혜 중에 강의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T 복음교회(개척교회) 주일 저녁예배에 참석하여 설교했습니다. 또한 11월 7일에는 H 한인교회에 성경통신강좌 11월분을 배부 하였습니다. 11월 8일에는 애굽복음주의 신 학교 수단인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 였으며, 11월 11일 미국 맥도믹 신학교 목 회학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한인 목회자 20 여명을 맞이하여 애굽의 성경역사 및 애굽 선교에 대한 특강을 하였습니다.

11월 16일에는 O 교회 사역자인 J 목사 와 만나 교회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

으며 선교지원금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1일 카이로 한인교회에서도 추수감사 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J의 녀마주의 프로젝트 현황에 대해서 의논하고 건축비를 전달한 것이 얼마나 기 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H 한인교회, E 지 교회, 개척교회들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며 선교차량을 11월 25일자로 폐차처분 하였습니다. 선교차량 구입을 위 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이집트에 이주해 온 수단인들의 영혼구 원을 위해서 구체적인 일들의 준비와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단 현 지인 선교사를 위해서 또한 신학생들의 장 학금 지원과 계속적인 후원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토록 기도해 주십시오.



▲ 애굽복음주의신학교 졸업생들과 함께